

弔詞

正月 大보름날 滿月이 東方에서 떠오를 무렵
西南의 明星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더니
高雄 佛光山에서 圓寂하신 訃音을 듣게 되었나이다.

大宗師의 一生을 가만히 돌이켜보니
臨濟 禪旨로 中原의 一葉이 되시고
海峽을 건넌 萬行으로 五華를 피우시더니
그 열매의 날개는 바람을 타고서 世界萬方으로 퍼져나가더이다.

人類의 平安과 幸福이라는 人間佛敎를 主唱하시니
西天의 聖人께서 남긴 拔苦與樂의 現代的 具現이요
法海에 얽매이지 않는 걸음은 옛 禪師께서 가신 그 길이였습니다.

이제 슬픔을 추스르고서 다시 老師께 勸請하나이다.
혹여 大願을 잇고서 절대로 涅槃樂에 머물지 마시옵고
速還娑婆하시어 大慈悲로 後 衆生을 引導하소서.

佛紀2567(2023)年 2月 13日

(社)韓國佛敎宗團協議會長
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



弔電

驚悉佛光山開山大師星雲長老於2023年二月五日在佛光山傳燈樓安祥圓寂，我謹代表韓國佛教界，特致以深切哀悼。

星雲大師創建佛光山，一生致力推動佛教教育、文化、慈善、弘法事業，以弘揚人間佛教為宗風，在佛教的文化藝術、學術出版、國際化發展等，做出了不朽的貢獻；與韓國佛教的友好交流，長期以來不吝關注，備受韓國佛教界推崇。

大師今安然示寂，韓國佛教界哀思祈願大師乘願再來，廣惠眾生、大轉法輪。

2023年2月6日

韓國佛教宗團協議會 會長 眞愚

